

장흥 初·中 절반이 '미니학교'

24개校 중 13개 학교 전교생 100명 미만 전락

복식수업·비전공 교사 많아...조손가정도 급증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24개 초·중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교가 전교생 100명 미만의 미니학교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여러 학년이 한개 반에

서 복식 수업을 하는가 하면 비전공 과목 지도교사가 늘고 있다.

장흥지역은 매년 학생수 감소 규모가 150여명에 달하고 있어 향후 5년 후에는 현재 2천710여명인 초등생은 2천100명으로, 중학생은 1천520명에서 1천300명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학생수 감소

로 존폐 위기에 처하는 등 농촌교육이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반면 조손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취학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장흥교육청이 집계한 조손가정 학생수는 초등생이 170명, 중학생이 48명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93명에 달하고 있어 교사들이 언어 교육과 과제물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사택 부족 등으로 인해 장

흥지역 초·중교사 450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방과후 학생 지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표 장흥교육장은 "농어촌지역 교육은 이제 일선 교육청이 때 마기에 역부족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며 "우수교사 확보와 교원사택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성군·농협장성군지부 "고품질쌀 명품화 추진"



장성군(군수 유두석)과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지부장 조일윤)는 지난달 29일 도·군의원, 농협임직원, 쌀재배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재배산 이례산성에서 '고품질 장성쌀 명품화 산상 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수입쌀 시판과 한·미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고품질 장성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에서 제일가는 명품 장성쌀을 만들어가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성군과 농협은 통합 브랜드 개발·홍보와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88억원(군·도비 : 66억원, 농협 22억원)을 투자한다.

또 올해 216ha의 쌀 계약재배를 추진한데 이어 오는 2015년까지 3천ha로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성군과 농협은 장성쌀 평생고객 모시기 및 장성쌀 예약 주문(061-393-2152)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강진 '하멜전시관' 12월 개관

병영성내 하멜 동상·대포 등 50여점 전시 조선 후기 생활용품·유럽 古地圖도 선보여



강진군 병영성내에 '하멜 전시관'이 오는 12월 문을 연다.

31억원을 들여 400여㎡ 규모로 개관하는 하멜 전시관에는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르름 시에서 기증한 하멜 동상과 17세기 사용했던 대포 등 무기, 편지와 저서 등 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조선 후기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 등도 함께 전시된다.

특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소장하고 있던 유럽 고지도(古地圖·사진) 2점도 선보인다. 1784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고지도는 가로 42cm, 세로 34cm 짜리와 가로 47cm, 세로 32cm 크기의 종이지도로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산맥과 강, 항구 등이 상세히 표기돼 있다. 고지도는 유 청장이 지난해 유럽순방 때 고서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수확 앞둔 강진 읍천 '흑미'

면(面) 전역이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지정된 강진군 읍천면 한 들녘에서 까만 이삭을 드러낸 흑미(黑米)가 수확을 앞두고 있다. 강진군은 50여ha에 흑미를 비롯해 홍미,녹미 등 유색미(有色米) 품종을 재배, 일반 쌀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담양군 '모기와의 전쟁'

죽녹원·관방제림 등 해충 방제 실시 '竹鄉' 불구 모기서식 대밭 없애기도



원로조합원 게이트볼 대회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지부장 나승운)가 지난달 28일 영산강 둔지에서 관내 13개 농협조합장과 나주시 게이트볼연합회 원로청년부 회원 17개 팀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2회 농협중앙회 나주시 지부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나주시지부는 지역 발전에 공헌해 온 원로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게이트볼 대회를 열고 있다. /나주=정철원기자 chjung@

담양군이 죽녹원과 관방제림 등 관광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해충 방제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담양군은 지난 2월부터 지역내 대표적 관광명소인 죽녹원 등의 모기 퇴치에 착수했다.

먼저 3월에 모기 서식처인 대나무 그루터기 3만2천개를 제거했고 월동 모기 알과 유충을 없애기 위해 주 1회 친환경약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전 7시와 오후 5시 이후에 분무 소독을 했다.

이정실 군수는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의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죽향문화체험마을과 민간 소유 대나무 체험 지역 및 관광업소의 모기방제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양=차재희기자 jhwaha@

영암군 '권위적 의전' 없앤다

각종 행사 내빈 소개 등 절차 대폭 간소화

영암군이 각종 행사 때 의전을 대폭 줄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해부터 각종 행사를 군민 중심으로 치르기 위해 군수 자리를 단상 아래에 배치하고, 내빈 인사 소개를 대폭 줄이는 등 권위적이고 지루한 의전 절차를 과감히 축소했다.

특히 각종 행사 때 10명 가까이 등장하는 축사를 3인 이내로 하고 지정 좌석 없이 참석하는 순서대로 앉도록 하면서 행사의 성격에 맞게 군로자,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좌석을 배

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전 간소화 이전에는 행사 때 마다 내빈소개와 축사로 30~40분이 소요돼 참석자들을 짜증나게 했으나 참석자 위주로 진행되면서 군민들의 행사 참여가 늘고 반응도 매우 좋다"고 밝혔다.

영암군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는 일반 의전행사 42회, 체육행사 80회, 문화예술행사 45회, 축제를 비롯한 기타행사 60회 등 모두 227건에 이른다.

/영암=김현민기자 hnkim@

65세이상 2천여명 초청

영광군 '건강 축제' 연다

영광군이 2일 영광읍 단주리 종합체육관에서 '영광군 어르신 건강 축제를 개최했다.

영광군 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준성)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영광지역 65세 이상 주민 2천여명을 초청해 체육·민속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영광군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km 구간의 건강걷기대회를 비롯해 사물놀이, 어린이 재롱잔치 등 식전행사에 이어 게이트볼, 투호, 율놀이, 장기대회와 3대 가족 장기자랑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광주·전남 이용가능장모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확장 이전 세일 30%

이용사 개인지도 10.1-10.31까지

0.03mm 초슬림!!

귀하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리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63-573-5888, 072-4621

광주: 신촌동 111-1111-5000

바지축의 아빠티 - 바지는 "루스터펜츠"

루스터펜츠

루스터펜츠는 바지축의 아빠티를 위한 바지입니다. 바지축의 아빠티는 바지축의 아빠티를 위한 바지입니다. 바지축의 아빠티는 바지축의 아빠티를 위한 바지입니다.

1577-2787